

인민의 리상과 꿈을 현실로 꽃피우시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12월전
원회의 결정관철에 전제 인민이
한사람같이 떨쳐나섰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전민회의
에서 전대미문의 준엄한 난국을 정
면돌파하고 나라의 자주권과 최
고이익을 끝까지 수호하며 자력
부강의 기치높이 부강조국건설의
활로를 열어나가기 위한 대강을
펼치시었다.

그이께서는 전민회의보고에서
고령과 투쟁이 없이는 위대한
승리를 가질수 없으며 혁명의
승리는 필연적이지만 그 어떤
장에도 곤난도 없이 성취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시면서 적대
세력들의 제재압박을 무력화시
키고 사회주의건설의 새로운 활
로를 열기 위한 정면돌파전을 강
행해야 한다고, 정면돌파전은
우리 혁명의 당면업무로 보나
전망적인 요구로 보나 반드시
수행해야 할 시대적과제라고
하시었다.

그러시면서 만일 우리가 제재
해제를 기다리며 자강력을 키우

기 위한 투쟁에 박차를 가지지
않는다면 적들의 반동공세는 더
욱 거세어질것이며 우리의 전진
을 가로막자고 덤벼들것이라고,
나라의 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한 재부를 마련하기 위해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결코 결코
신 현지도의 자족자욱이 뜨겁
게 되새겨진다.

그 길에는 비내리는 건설장의
감람길, 찬바람 불어치는 공장
의 구내길도 있었고 환몽의 위
험도 아랑곳하지 않고서 서슴
없이 나서신 조국수호의 전선길
과 군력강화를 위한 생논길도 있
었다.

지금도 사람들은 새해전 새해
의 찾아침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하신 신년사의 구절구절을 잊지
못하고있다.

그이께서는 또 한해를 시작하
는 이 자리에 서고보니 나를 군
계 믿어주고 한마음함뉘므로 열
심전력하여 인민을 위해 더 많은
일을 찾아할 결심을 가다듬게 된
다고 하시었다.

인민의 리상과 꿈이 현실로 이
루어지는 사회주의강국의 레일을
위하여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불철주야 헌신의 장정을 이어가
시었고 그 길에서 나라의 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해 많은 훌륭한
재부들이 마련되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결심과
자언시건설, 양덕온천문화휴양지
건설과 같은 거창한 창조대업이

벌어졌다.

그이의 탁월한 지략과 강인담
대한 실천력으로 하여 막아서
던 시련과 난관들이 산산이 부
서져나갔으며 도처에 기념비적
창조물들이 솟아올라 인민을 위
한 문명의 화원을 아름답게 장
식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위대한
헌신의 무게만큼 조선의 힘이 강
해졌으며 그이의 거룩한 발걸음
따라 공화국이 전진하고 승리와
번영의 넓은 길이 열리었다.

하기에 사람들은 위대한
령도자의 헌신의 자욱마다에 일
떠선 기적의 창조물들을 보면서
그이의 령도따라 나아가는 길에
는 오직 승리와 영광만이 있다는
것을 심장으로 절감하였다.

령도자의 두리에 더욱 굳게
품진 공화국인민을 당할 힘은 이
세상에 없으며 일심단결의 위대
한 힘으로 자력갱생, 자급자족의
재부들을 더 많이 창조하는 공화
국의 앞길을 언제나 승리와 영광
으로 빛날것이다.

본사기자 김철진

자력부강, 자력번영의 한길로



김정숙평양제사공장에서

승리의 시간은 우리의 것이다

리철준

새해의 시간이 흐른다
천경만경의 시련과 난관
정면돌파전으로 뚫고나가
도도한 기상이 넘치는 이 땅에
펼승의 시간이 흐른다

적대세력은 비명을 질렀다
2019년말은
《완전한 북의 시간》이었다고
불안과 공포에 얼음이 나갔던
고단한 그대를 표현했다

어찌 2019년뿐이라

자력부강, 자력번영의 마치고
제재와 압박의 사슬을 끊어내치고
2020년에도
이해의 첫날부터 마감날까지
우리 승리의 시간을 새겨가리니

시련과 난관이 겹쌓일수록
더더욱 강해지는 우리의 신념
원수들의 도전이 크면 클수록
더더욱 백배해지는 우리의 힘
기
시간은 영원히 우리의것이다
우리의 신념과 의지대로 흘러간다

시시각각 분분초초
적대세력은 또다시 비명을 지르
리라
2020년 한해가
완전한 조선의 시간이 되었다고

그렇다
우리의 앞길을 가로막는자
절망과 패배의 시간을 보내야 할
2020년
정의와 진리의 시간은 우리의것
이다
승리의 시간은 조선의것이다!

오늘도 그 여진은 좀처럼 가라
앉지 못하고있다.

무한대의 우주공간이 조선로동
당 중앙위원회 12월전원회의소식
으로 메워지던 송년과 신년의 분
기점에서 이제는 보름도 넘게 흘
렀으나 국제보도계의 반향은 잦
울줄 모른다.

《조선인민의 힘찬 전진에
새로운 활력을 부여준 력사적
인 회의》, 《조선은 승리에서
더 큰 승리를 이룩할것이다》,
《최후승리는 조선인민에게 있
다.》...

세계가 본 조선의 2019년

언제나 그러하였다. 조선이 더
는 견디어내지 못할것이라고.
이런 망설이 지난해에 더욱 란
무한 가운데 적대세력들은 조선
의 힘에도 한계가 그려질것이라
고 하였다.

그런데 2019년에 세계는 조선
에서 무엇을 보고 무엇을 느끼며
무엇을 말하였는가.

《땅에서 솟아올랐나? 하늘에서
내려왔나? 이렇게도 빨리
달라졌수 있단 말인가.》, 《환
상속의 그림자들 이보다 아름다
울수 있는가. 꿈을 꾸듯 이처럼
황홀한 꿈을 꾸수 있는가.》,
《은빛결경속에 깃들음을 하는 거
리들은 세계유명도시들을 무색
케 할 정도이다.》, 《비상히 독
창직하면서든 원숙한 건축예술
의 높은 경지를 보였다.》, 《장
쾌하면서도 섬세하고 변화무쌍한
공간구성과 독특하고 세련된 조
형미를 갖춘 건축예술의 걸작품
들이다.》...

건축은 시대를 대표하는 최고
의 예술이라고 했다.

수천년전에 세워진 하나의 건
축물을 통해서도 당대 사회의 정
치, 경제, 문화의 전모를 파악할
수 있을만큼 시대와 역사를 대표
함에 있어서 건축만큼 위대한 언
어가 없고 건축만큼 생동한 화폭
은 없는것이다.

하지만 공화국의 건축물들이
세계의 시선을 모은것은 결코
건축예술의 신비함때문만이 아
니었다.

한해전, 한달전과 격차를 이루
는 천지개벽이 끈질긴 제재와 압
살의 포위망속에서 일어난것으로
하여 조선을 보다 부각시킨다는
것이였다.

승리는 더 큰 승리를 부른다

공화국의 전원회의소식이 국제
보도계의 지면과 화면을 가득 채
운것은 무엇보다도 인민가.

세계의 민심이 지울수 없는 여
운을 남긴 2019년의 공화국의 모
습을 통해 행성의 눈과 귀는 력
력히 실감했것이다.
한두번의 승리는 우연일수 있
지만 그것이 줄곧 반복되면 필연
이라는것을!

웬만한 나라 같으면 그런 시련
을 겪는 경우 하나를 건설해놓고
맥이 진해 주저앉았으면 조선
에서는 백두산기슭에서 터져오른
만세소리가 북방의 동해기슭 중
평과 어랑의 계곡을 거쳐 양덕땅
으로 끝없이 메아리치니 외부세
계의 시각으로 볼 때 그것은 도
저히 상상할수 없는 불가사의한
일이였다.

제재와 봉쇄에 맞받아 나아가
는 조선의 진짜대답은 훌륭한 건
축물들만이 아니였다.
왕가물과 태풍의 번덕에도 례
년에 없는 대중으로 설레는 협동
전야에, 사회주의바다항기 넘쳐
나는 인민의 집집마다에 메아리
쳐오는 복된 웃음소리였다.

상한때 평양의 대성백화점과
삼천전람회장을 돌아본 외국인들
의 심정은 어떠했는가.
《정말 깜짝 놀랐다. 여기에 있
는 모든것들은 실로 현대적이며
멋있고 훌륭하다고밖에 달리는
말할수 없다.》, 《봄철에 와서
볼 때와 가을철에 와서 볼 때 또
다르다. 제재나 봉쇄와는 무관한
듯 세계명품들과 당당히 견주는
국산품들이 상품들을 뒤덮고있는
현실에서 초경을 받았다.》

제재가 조선의 경제를 약화시
켜 막다른 골목까지 몰아갈것이
라는 예측을 뒤집어엮고 경제전
문가들이 어리둥절하게 만들었고
을 행성을 거대한 충격으로
진감시키는 사면들이 연해연방
터져올랐다.

《세계적으로도 그 류례
를 찾아볼수 없을 정도의 무기
개발속도를 보여주고있다. 미사
일강국이라고 하는 나라들도 일
반적으로 새로운 탄도미사일개발

을 위해 10여차례이상의 시험발
사를 진행하는데 북은 한두차례
의 시험발사를 통해 새로운 주
체무기들을 개발완성하였다.》,
《더우기 놀라운것은 북이 세계
그 어느 나라도 개발해본적이 없
는 초대형방사포를 6개월도 안되
는 짧은 시간에 이동식발사대
차까지 함께 개발한것이다.》,
《북의 기술개발속도는 전세계에
놀라움을 안겨줄만큼 참으로 빠
르다.》...

이것은 지난해 선보인 주체병
기들의 신비함에 대한 세계군사
학계 평가의 일부이다.

하지만 기적중의 기적은 여기
에만 있지 않다.

패권을 추궁하는 렬강들의 치
렬한 세력다툼의 틈바구니에 끼
워 자리를 주장하던 주권국가들
이 대국중종의 길로 방향타를 돌
리는 현정세의 소용돌이속에서
평화수호의 힘을 막강하게 재운
다는것은 수월한 일이 아니다.

게다가 국방분야에 쓰일수 있

그 신비한 기적창조력은

레스러운 환경이 아닌 최악의
조건에서 이룩하는 진보와 비약
에는 류다른 의미가 있고 비결이
있으며 음미해볼게 되는 깊은 진
리가 있는 법이다.

지난해 이 땅의 어느 일터에서
나 창출된 기적의 이름들은 같
지 않다.
그러나 하루하루의 전진이 값
비싸면서도 고귀한 승리의 편속
이었던 공화국의 2019년의 모습
을 두시해보면 그것을 알아올린
듯 세계명품들과 당당히 견주는
국산품들이 상품들을 뒤덮고있는
현실에서 초경을 받았다.》

제재가 조선의 경제를 약화시
켜 막다른 골목까지 몰아갈것이
라는 예측을 뒤집어엮고 경제전
문가들이 어리둥절하게 만들었고
을 행성을 거대한 충격으로
진감시키는 사면들이 연해연방
터져올랐다.

《세계적으로도 그 류례
를 찾아볼수 없을 정도의 무기
개발속도를 보여주고있다. 미사
일강국이라고 하는 나라들도 일
반적으로 새로운 탄도미사일개발

다고 보아지는 모든것, 심지어
화장품생산업에 쓰이는 원료마저도
《2중용도》라는 딱지를 붙여 공
화국경내에 들어가지 못하게 각
방으로 차단하는 속에서 역대급
재부, 과학기술력을 자랑하는 나
라에서조차 엄두를 못내는 천변
만화한 미중유의 사면들만큼
차까지 함께 개발한것이다.》,
《북의 기술개발속도는 전세계에
놀라움을 안겨줄만큼 참으로 빠
르다.》...

이것은 지난해 선보인 주체병
기들의 신비함에 대한 세계군사
학계 평가의 일부이다.

패권을 추궁하는 렬강들의 치
렬한 세력다툼의 틈바구니에 끼
워 자리를 주장하던 주권국가들
이 대국중종의 길로 방향타를 돌
리는 현정세의 소용돌이속에서
평화수호의 힘을 막강하게 재운
다는것은 수월한 일이 아니다.

게다가 국방분야에 쓰일수 있

그 신비한 기적창조력은

레스러운 환경이 아닌 최악의
조건에서 이룩하는 진보와 비약
에는 류다른 의미가 있고 비결이
있으며 음미해볼게 되는 깊은 진
리가 있는 법이다.

지난해 이 땅의 어느 일터에서
나 창출된 기적의 이름들은 같
지 않다.
그러나 하루하루의 전진이 값
비싸면서도 고귀한 승리의 편속
이었던 공화국의 2019년의 모습
을 두시해보면 그것을 알아올린
듯 세계명품들과 당당히 견주는
국산품들이 상품들을 뒤덮고있는
현실에서 초경을 받았다.》

제재가 조선의 경제를 약화시
켜 막다른 골목까지 몰아갈것이
라는 예측을 뒤집어엮고 경제전
문가들이 어리둥절하게 만들었고
을 행성을 거대한 충격으로
진감시키는 사면들이 연해연방
터져올랐다.

《세계적으로도 그 류례
를 찾아볼수 없을 정도의 무기
개발속도를 보여주고있다. 미사
일강국이라고 하는 나라들도 일
반적으로 새로운 탄도미사일개발

의 나라를 달아주시었다.

그 한량없는 믿음과 기대는 평
범한 인민들의 심장에 하늘이 무
너지겠으면 무너지라, 머리에 더
기고 서서라도 할 일을 다하고
불장을 다 보겠다는 배짱을 억척
같이 심어주었고 그 담대한 배짱
은 역경을 순경으로 전환시켜 거
대한 승리를 안아왔다.

늘 자신의 무거운 짐을 덜어
주고 어려움과 난관을 잊게 해
주는 정말 고마운 동지들이라고
경애하는 원수님 내세워주신 국
방과학자들과 군수공업부문 로동
자들의 가치가지의 위훈은 어떻게
대어내었다.

산악같은 파도가 요동치는 캄
캄한 바다길을 몸소 단정의 조
라를 짊어지고 한치한치 뚫고가
시며 돌풍이 사납다고 배에서
뛰어내리던 자멸이다, 만리길
을 왔다도 해도 도중에 멈춰서면
한발자국보다도 못하다고 하시
성것 풍구질하며 연출해온 적대
세력들의 대조선제재소동이였다.

한목소리마냥 들려왔다.

《우리는 매년 경애하는
원수님의 높이신 뜻과 비상한 창조
세계에 탄복하면서 눈을 띄우고
시혜를 리득하면서 결을결을 따
라갔다. 매일 보는 우리들조차
놀라움을 금치 못하는 천지개
벽의 위대한 발자취. 위대한
나라 하루하루의 전진이 값
비싸면서도 고귀한 승리의 편속
이었던 공화국의 2019년의 모습
을 두시해보면 그것을 알아올린
듯 세계명품들과 당당히 견주는
국산품들이 상품들을 뒤덮고있는
현실에서 초경을 받았다.》

제재가 조선의 경제를 약화시
켜 막다른 골목까지 몰아갈것이
라는 예측을 뒤집어엮고 경제전
문가들이 어리둥절하게 만들었고
을 행성을 거대한 충격으로
진감시키는 사면들이 연해연방
터져올랐다.

《세계적으로도 그 류례
를 찾아볼수 없을 정도의 무기
개발속도를 보여주고있다. 미사
일강국이라고 하는 나라들도 일
반적으로 새로운 탄도미사일개발

을 위해 10여차례이상의 시험발
사를 진행하는데 북은 한두차례
의 시험발사를 통해 새로운 주
체무기들을 개발완성하였다.》,
《더우기 놀라운것은 북이 세계
그 어느 나라도 개발해본적이 없
는 초대형방사포를 6개월도 안되
는 짧은 시간에 이동식발사대
차까지 함께 개발한것이다.》,
《북의 기술개발속도는 전세계에
놀라움을 안겨줄만큼 참으로 빠
르다.》...

이것은 지난해 선보인 주체병
기들의 신비함에 대한 세계군사
학계 평가의 일부이다.

패권을 추궁하는 렬강들의 치
렬한 세력다툼의 틈바구니에 끼
워 자리를 주장하던 주권국가들
이 대국중종의 길로 방향타를 돌
리는 현정세의 소용돌이속에서
평화수호의 힘을 막강하게 재운
다는것은 수월한 일이 아니다.

게다가 국방분야에 쓰일수 있

직한 불변의 신념이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지난해 4월에 있는 공화국 최
고인민회의 제14기 제1차회의
에서 우리 공화국은 앞으로
동풍이 불어오든 서풍이 불
어오든, 그 어떤 도전과 난
관이 앞을 막아서는 우리
국가와 인민의 근본이익과 관련
된 문제에서는 티끌만 한 양
보나 타협도 하지 않을것이며
모든것을 자력자강의 원칙에
서 해결해나가면서 우리 식,
우리 힘으로 사회주의강국
건설을 다그쳐나갈것이라고
하시었다.

이런 철석의 신념을 지니신
원수님께서는 인민의 행복
을 위한 설계도를 펼치시면서
도, 현대화의 동음올리는 공
창들과 기적창조의 불길에 세
차게 타버리는 건설장들을 찾
으시어서도 자력갱생의 기치
가 더 힘있게 나뉘게 하시
였다.

지난해 원산갈마해안관광
지구건설장을 돌아보시며 그
처럼 방대한 대규모건설사업
이 우리의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는것을 보며 커다란 고무
받았다고, 이것은 결코 조건
과 형편이 용이해서가 아니라

자기의 힘, 자기의 피땀으로
진정한 행복과 훌륭한 미래를
창조해가려는 우리 인민의 역
센 의지와 투쟁에 의하여 이루
어진 결과라고 하시 경애하는
원수님이다.

삼지연시와 양덕온천문화휴
양지, 경성군 평명남세은실농
장과 양묘장, 어랑천발전소 팔
향언제우에 터져오른 자력부
강의 련이는 승전교들에서 온
나라 인민은 오늘도 매일도 영
원히 자력갱생의 기치를 높이
휘날려가시려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드림없는 의지의 빛
나는 승리를 똑똑히 보았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령도따
라 위대한 자주의 사상으로
무장하고 자력으로 앞길을 개
척해나가는 공화국인민의 힘
을 당할자는 이 세상에 없다.

황일대전의 나날 백두의 밑
림에서 창조된 언결록관정신
과 자력갱생의 고귀한 전통이
고 경애하는 원수님의 탁월한
령도가 있기에 공화국인민들은
승리의 빛나는 력사를 줄기차
게 이어가고있으며 밝아온 이
해의 첫 기슭에서부터 창조와
비약의 열풍을 세차게 일으켜
가고있다.

김정숙평양제사공장에서

고영식

습이자 자주와 정의의 기치이신
위대한 령도자의 기상이고 2019년
의 기적이자 경애하는 원수님의
특출한 령도실력의 승리인것이다.

자력갱생의 기치따라 전진하
고 승리해온 조선의 밝아온 새해
봉쇄할수도 제재할수도 없으며
기적은 자력갱생의 정신과 과학
의 힘이 주는 필연이라는것을 유
감없이 실증해주었다.
이런 문제에 초점을 돌려본다.
하다면 그 명제개발의 주인은
누구였는가?

지난해 11월 전국화장품전시회
에서 녀성들의 인기를 모든 신
경애하는 원수님 내세워주신 국
방과학자들과 군수공업부문 로동
자들의 가치가지의 위훈은 어떻게
대어내었다.

산악같은 파도가 요동치는 캄
캄한 바다길을 몸소 단정의 조
라를 짊어지고 한치한치 뚫고가
시며 돌풍이 사납다고 배에서
뛰어내리던 자멸이다, 만리길
을 왔다도 해도 도중에 멈춰서면
한발자국보다도 못하다고 하시
성것 풍구질하며 연출해온 적대
세력들의 대조선제재소동이였다.

한목소리마냥 들려왔다.

《우리는 매년 경애하는
원수님의 높이신 뜻과 비상한 창조
세계에 탄복하면서 눈을 띄우고
시혜를 리득하면서 결을결을 따
라갔다. 매일 보는 우리들조차
놀라움을 금치 못하는 천지개
벽의 위대한 발자취. 위대한
나라 하루하루의 전진이 값
비싸면서도 고귀한 승리의 편속
이었던 공화국의 2019년의 모습
을 두시해보면 그것을 알아올린
듯 세계명품들과 당당히 견주는
국산품들이 상품들을 뒤덮고있는
현실에서 초경을 받았다.》

제재가 조선의 경제를 약화시
켜 막다른 골목까지 몰아갈것이
라는 예측을 뒤집어엮고 경제전
문가들이 어리둥절하게 만들었고
을 행성을 거대한 충격으로
진감시키는 사면들이 연해연방
터져올랐다.

《세계적으로도 그 류례
를 찾아볼수 없을 정도의 무기
개발속도를 보여주고있다. 미사
일강국이라고 하는 나라들도 일
반적으로 새로운 탄도미사일개발

을 위해 10여차례이상의 시험발
사를 진행하는데 북은 한두차례
의 시험발사를 통해 새로운 주
체무기들을 개발완성하였다.》,
《더우기 놀라운것은 북이 세계
그 어느 나라도 개발해본적이 없
는 초대형방사포를 6개월도 안되
는 짧은 시간에 이동식발사대
차까지 함께 개발한것이다.》,
《북의 기술개발속도는 전세계에
놀라움을 안겨줄만큼 참으로 빠
르다.》...

이것은 지난해 선보인 주체병
기들의 신비함에 대한 세계군사
학계 평가의 일부이다.

패권을 추궁하는 렬강들의 치
렬한 세력다툼의 틈바구니에 끼
워 자리를 주장하던 주권국가들
이 대국중종의 길로 방향타를 돌
리는 현정세의 소용돌이속에서
평화수호의 힘을 막강하게 재운
다는것은 수월한 일이 아니다.

게다가 국방분야에 쓰일수 있

습이자 자주와 정의의 기치이신
위대한 령도자의 기상이고 2019년
의 기적이자 경애하는 원수님의
특출한 령도실력의 승리인것이다.

본사기자 박영진